



미 증시, 9일 연속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차익실현

미국 증시 리뷰

20일(수) 미국 증시는 과매수 구간 진입 및 9일 연속 상승에 대한 부담, 물류기업 페덱스(-12.5%)의 부정적인 전망에 하락 마감 (다우 -1.27%, S&P500 -1.47%, 나스닥 -1.5%)

12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는 110.7(예상 102.0, 전월 102.0)로 예상치 크게 상회. 현재 경기 평가지수는 전월 136.5에서 148.5, 6개월 전망지수는 77.4에서 85.6으로 상승. 반면 1년 후 인플레이션 기대는 전월 5.7%에서 5.6%로 2020년 말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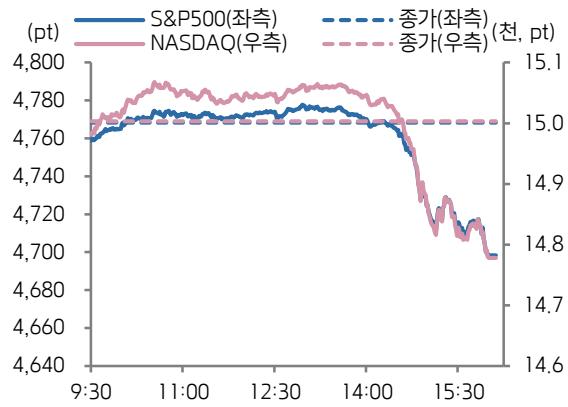
11월 기존주택판매는 MOM 0.8%(예상 -0.3%, 전월 -4.1%)로 예상치 상회. 모기지 은행협회(MBA)는 주택 구입을 위한 모기지 신청이 전주대비 1% 감소, YOY 18% 감소했다고 발표. 또한 주택 용자 재융자 신청은 전주대비 2% 감소, 재융자 수요는 YOY 18% 증가. 지난 주에 큰 폭으로 증가했다가 이번 주에 감소한 것은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주택 구매를 원하는 수요자들이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

영국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YOY 3.9%(예상 4.3%, 전월 4.6%) 기록하며 3개월 연속 하락.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된 2021년 10월 이후 최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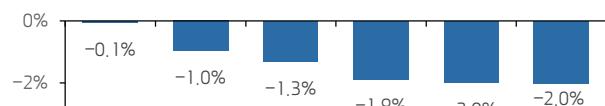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하고 가담했기 때문에 특정 주의 경선에 출마할 수 없다는 미 콜로라도 법원 판결 보도. 2021년 '1·6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 트럼프의 내란 선동 혐의를 인정해 그의 대선 경선 출마를 금지, 다른 25개주 법원들도 비슷한 법적 판단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에 트럼프의 경선 불가 가능성성이 불거짐.

전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통신(-0.1%), 에너지(-1%), 부동산(-1.3%)의 하락폭이 가장 작았고, 필수소비재(-2%), 유tility(-2%), 금융(-1.9%)의 하락폭이 가장 커짐. 페덱스(-12.5%) 국제 배송의 매출 및 마진 악화로 인한 3분기 실적 예상치 하회, 배송 수요에 대한 비관적 전망으로 연간 매출 전망을 한자릿수로 하향 조정한 영향으로 급락, 경쟁사 UPS(-2.9%) 동반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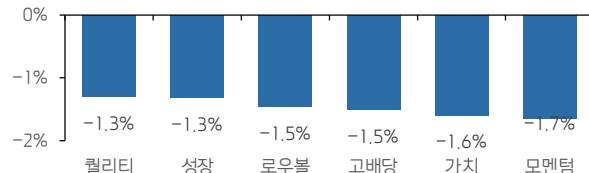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614.30	+1.78%	USD/KRW	1,299.05	-0.66%
코스피 200	350.11	+1.79%	달러 지수	102.43	+0.25%
코스닥	862.98	+0.55%	EUR/USD	1.09	+0%
코스닥 150	1,395.37	+0.32%	USD/CNH	7.15	-0.01%
S&P500	4,698.35	-1.47%	USD/JPY	143.51	-0.04%
NASDAQ	14,777.94	-1.5%	채권시장		
다우	37,082.00	-1.27%	국고채 3년	3.223	-5.1bp
VIX	13.67	+9.1%	국고채 10년	3.277	-2.8bp
러셀 2000	1,982.84	-1.89%	미국 국채 2년	4.331	-10.8bp
필라. 반도체	4,007.66	-2.86%	미국 국채 10년	3.847	-8.4bp
다우 운송	15,725.88	-2.35%	미국 국채 30년	3.986	-5.3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533.82	-0.03%	WTI	73.76	-0.24%
MSCI 전세계 지수	721.87	+0.64%	브렌트유	79.14	-0.11%
MSCI DM 지수	3,153.35	+0.7%	금	2043.7	-0.41%
MSCI EM 지수	998.60	+0.07%	은	24.36	+1.33%
MSCI 한국 ETF	63.12	-0.22%	구리	387.4	-0.56%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22%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1.8%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85%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02.06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1. 미증시 과매수 구간 진입에 따른 조정 불가피
2. 장마감 후 호실적 발표한 마이크론이 국내 반도체주에 미치는 영향
3. 장중 대주주 요건 완화 발표를 앞둔 경계심리로 변동성 확대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9 일 연속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조정 받기는 했지만 금리 인하 기대감은 유효. 12 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 기존주택 매매 등 경제지표는 컨센서스를 상회하며 경기 경착륙 전망을 뒷받침. 이날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에 즉각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지만, 결국 내년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제를 상정하고 있음.

연준 외 중앙은행들의 금리인상 종료 가능성 역시 부각. 전일 발표된 독일 PPI 와 영국 CPI 가 예상치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골드만삭스는 BOE 의 금리 인하 시점을 내년 6 월에서 5 월로 앞당김. 미증시가 과매수 구간에 진입한 만큼 단기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마이크론 호실적, 내일 발표될 미국 GDP 최종치 발표 이후 긍정적인 흐름 예상

한편, 콜로라도 법원의 트럼프 대선 출마 불가 판결의 경우 트럼프 측은 연방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 9 명 중 6 명이 보수성향으로, 상고가 이루어질 경우 판결이 나올때까지 콜로라도주 예비선거 투표용지에 트럼프 후보 이름을 기재. 콜로라도주 예비선거 후보 마감 직전인 1 월 4 일이며 연초 미 대선 리스크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이에 신재생, 전기차 섹터의 변동성 확대될 것.

20 일(수) 국내증시는 미 증시 강세, 원달러 환율 하락, 외국인 현선물 2 조원 매수에 힘입어 강세. (KOSPI +1.78%, KOSDAQ +0.55%)

금일에는 미증시 조정, 장중 대주주 요건 완화 뉴스플로우에 주목하며 제한적인 움직임 보일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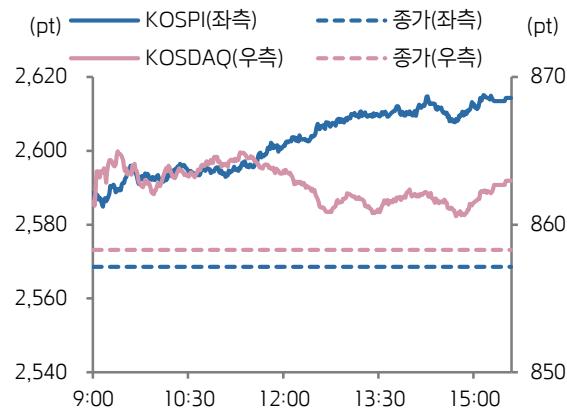
다만 마이크론이 장 마감 이후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을 발표, AI 블록과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 등 긍정적으로 언급하며 시간외 4%대 강세를 보이고 있음. 이후 컨퍼런스콜에서의 HBM 관련 코멘트에 따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에 영향.

전일 국회 2024 년 예산안 합의 보도에 대주주 요건 완화 결정 기대감 역시 고조. 그러나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취임 시점 이후가 유력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는 등 결국 지연되자 코스닥은 눈치보기에 돌입하며 제한적인 움직임. 개인들은 지난주 코스피 3.4 조원, 이번주 1.4 조원 순매도 중.

국무회의가 열리는 26 일이 관건. 배당을 받기 위해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배당 기준일 역시 26 일로, 이후에는 매도 물량이 출회될 수 있음에 유의. 반대로 26 일 이전에 최종 결정이 나올 시 최근 강세 보였던 신규상장주, YTD 수익률 상위 종목 중 최근 일주일간 낙폭이 컸던 종목들에 자금이 쏠릴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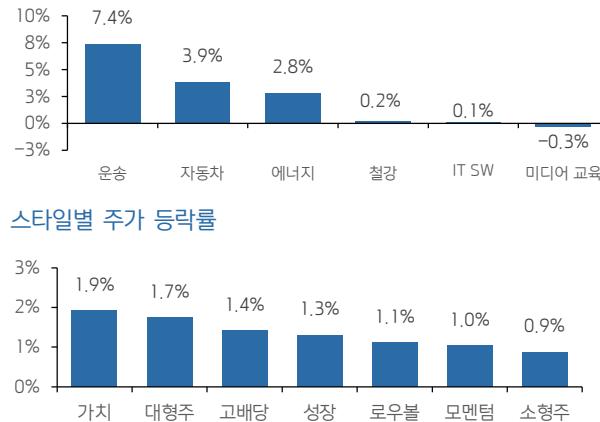
현재 컨센서스는 정부의 기준 공약이었던 100 억원과 야당이 주장하는 현행 수준 10 억원의 절충으로 50 억원이 거론. 과거 대주주요건이 2016년 25 억원, 2018년 15 억원이었던 것을 감안 시 현실적으로 20~30 억원 선에서 결정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금액에 상관없이 확정이 나면 불확실성 해소 요인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큼.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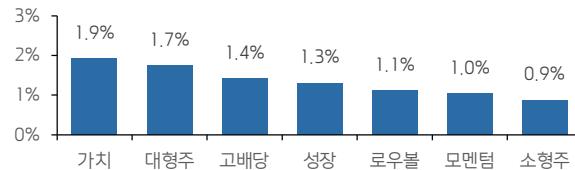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제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짰습니다.